“국민 마음운동” 명상 실천 공동체 ‘시동’

세계명상의날 한국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2회 포럼, 명상인 시상 등
올해 주요 사업계획 확정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세계 명상의 날 한국위원회는 2월 27일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회의 직후 진행된 기념 촬영.

“명상이 특별한 수행이 아닌 우리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일상의 쉼표이자 마음운동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 사회의 갈등이 치유되고 평화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우 스님 인사말 中)

조계종이 중심이 돼 결성된 명상실천 공동체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년에 2회 명상포럼을 비롯해 명상 문화 진흥에 기여한 인물, 단체, 도서를 시상하는 문화상을 제정하는 등 명상 대중화 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세계 명상의 날 한국위원회는 2월 27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 한문화체험관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고 조직 운영 방안과 주요 사업 계획 등을 논의했다.

공동위원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결성된 ‘세계 명상의 날 한국위원회’가 국민 정신건강을 진흥하는 ‘명상 실천 공동체’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했다. 스님은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명상을 통해 국민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갈 것”이라며 “세계 명상의 날 한국위원회는 소통과 공감을 위한 든든한 네트워크가 돼야 한다”고 강조다. 그러면서 “위원회를 통해 구축된 연대의 힘은 사회의 분열을 막고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오늘 1차 운영위원회 회의가 위대한 여정의 실질적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출범한 세계 명상의 날 한국위원회는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 명상 단체 및 학회, 정치계, 경제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명상 공동체다. 진우 스님과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 윤종모 대한성공회 주교, 이경열 원불교 교무, 박도현 한국명상학회장, 원승희 대한명상의학회장, 조승래 국회 마음챙김포럼 대표 등 7명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문위원으로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전국선원수좌회장 불산 스님, 주호영 국회의부장 등 25명이, 부위원장으로는 선명상위원장 금강 스님, 동국대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 명경문화재단 이사장 주석 스님, 정원주 중앙신도회장 등 16명이 이름을 올렸다.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위원으로는 미래본부 사무국장 혜오 스님, 동국대 WISE캠퍼스 아동인성연구소장 혜주 스님, 박희승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 등 16명이 맡는다.

이날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조직 운영 방안과 연간 사업을 확정했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 운영 통장 개설 등을 위해 비영리단체 등록을 진행하며 임원진을 대상으로 연회비를 납부받기로 했다.

올해 주요 연간 사업으로는 하지(6월)와 동지(12월)에 맞춰 명상포럼이 2회 개최된다. 세계 명상의 날인 12월 21일을 기념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올해 기념행사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장소는 조계종·원불교·정토회 등 소속 기관 및 단체의 대여 가능한 시설을 이용하기로 했다. 또한 12월 19~21일까지를 명상 주간으로 지정해 단체별로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올해 기념행사부터는 명상 문화 진흥에 힘쓴 인물과 단체, 도서를 시상하는 문화상을 제정해 시상식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군불총 26주년 기념법회…“호국불교 계승” 다짐

2월 28일, 국방부 원광사서 봉행
김광민 준장 등 유공자 9명 포상



국군불교총신도회는 2월 28일 국방부 원광사에서 ‘창립 제2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국운융창과 호국불교 전통 계승을 발원했다.

국군 불자들의 신행 구심점인 국군불교총신도회가 창립 26주년을 맞아 국운융창과 호국불교 전통 계승 염원이 담긴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국군불교총신도회(이하 군불총)는 2월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원광사에서 ‘창립 제2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격려사에서 군불총의 노고를 치하했다. 스님은 “지난 26년 동안 군불총은 군불교의 든든한 뿌리이자 버팀목이었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법당을 지키고 장병들의 신행을 도운 원력이 오늘의 군불교를 있게 한 힘”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병과 군인 가족들에게 따뜻한 의지처가 되고, 군승 법사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유공자 포상에서는 군불교 발전에 헌신한 9명의 불자가 상을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인 공적상은 김광민 해군본부 준장(대리수상)이, 전법상은 손병진 국제평화지원단 원사와 최병민 미8군 한국군지원단 상사가 수상했다. 또 정정구 3사단 상사와 최재열 19전투비행단 상사, 최순례 지상작전사령부 호국선봉사 등 3명이 군종교구장상(원력상)을, 박상천 학군교 수원대 학군단 중령 등 3명이 국군불교총신도회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제4대 군종교구장을 지낸 혜자 스님은 법어를 통해 ‘정법(正法)’을 강조하며 복잡한 지식보다 내면의 부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했다. 스님은 “깨달음이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갖춰진 불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거울을 닦듯 마음의 때를 벗겨 내는 수행의 자세를 당부했다.

군불총 부회장 강동구 중장은 봉행사에서 “군불총은 특수한 군 환경 속에서 불법을 전하고 장병들의 마음을 보듬으며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어 오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군종교구장 법원 스님을 중심으로 한마음으로 협력해 장병 신앙심 고취와 군불교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 대중들은 최훈 군불총 사무총장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에서 “호국불교 전통을 이어 나라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도 물러서는 일이 없고, 오직 국가와 민족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큰 용맹심을 갖추게 해 달라”고 서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제46회 만해백일장

3월 29일 서울 동국대서
3월 17일까지 사전 접수

민족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 스님의 숭고한 문학 정신을 기리는 백일장이 열린다.

KYBA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길수, 이하 대불청)는 3월 29일 오전 10시 서울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 ‘제46회 전국만해백일장’을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만해 스님의 대표 시집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백일장은 전국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일반인은 물론 국군장병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참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참가 분야는 시·시조와 산문으로 나뉘며 시제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발표된다. 접수는 3월 17일 오후 6시까지 대불청 홈페이지(kyba.org)를 통해 사전 접수로만 진행된다.

임은호 기자

창립 2주년 교수붓다회 ‘시도·국제 전법위원회’ 출범

2월 27일, 동국대 정각원서 출범식
17개 지역 교수 · 학생 등으로 구성


교수붓다회 임원들이 2월 27일 열린 ‘시도 전법위원회 · 국제 전법위원회 출범식’에서 전법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불자교수 신행모임으로 시작해 창립 2주년을 맞은 교수붓다회 전법해(회장 김순남, 신한대)가 전국 시도는 물론 국제 전법위원회를 출범했다. 불자교수 네트워크 확대와 함께 전국 청년대학생 전법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교수붓다회는 2월 27일 서울 동국대 정각원에서 ‘시도 전법위원회·국제 전법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교수붓다회는 이날 출범한 △시도 전법위원회(위원장 이성원, 영남대) △국제전법위원회(위원장 최창영, 신한대)를 비롯해 △군전법위원회(위원장 김영주, 한양대 에리카) △교정기관전법위원회(위원장 송병국, 숭실대) △학습위원회(위원장 박수호, 중앙승가대) △수행위원회(위원장 송민서, 동국대), △성지순례위원회(위원장 홍성철, 경기대 서울캠), △조직재정발전위원회(위원장 윤탁, 동국대) 등 8개 상설위원회를 갖추고 폭넓은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자문위원과 지도교수 위원, 교수 위원, 학생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시도전법위원회는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전북, 전남, 광주, 제주,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등 17개 지역으로 세분화됐다. 각 지역 거점 대학의 교수들을 위원장으로 두고 활동하도록 해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지역 전법의 중추적 역할을 통해 수도권 못지않게 지역의 교수 포교 및 대학생 포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순남 회장은 “교수붓다회는 창립 이후 서울·경기 지역 10개 대학 지원뿐 아니라 지역협의체를 통해 전국으로 교수 포교와 대학생 전법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고 그 결과로 ‘시도·국제 전법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면서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풀뿌리 전법부터 세계를 무대로 하는 글로벌 전법까지 시작은 미약하지만 교수붓다회의 활동 지평을 넓히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전법 활동을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붓다회는 올해 각 위원회별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조직재정발전위원회를 통해 △사단법인 승격 △홈페이지 구축 △시도단위 전법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시도단위 출범식 지원금 마련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인도불교 부흥 염원 423Km 도보순례 회향

2월 2일~3월 1일 남인도 횡단
태국·인도서 사부대중 70명 참여


인도불교 부흥을 위해 도보순례 중인 스님들. 사진 출처=데칸 크로니클

태국과 인도에서 모인 사부대중이 인도불교의 부흥을 촉구하며 진행한 423km의 도보순례 ‘담마 파다야트라(Dhamma padayatra)’가 무사히 회향했다. 남인도의 여러 주를 가로지르는 이 도보 순례에 대해 3월 1일 인도의 ‘더 힌두’와 ‘데칸 크로니클’ 등 현지 언론들이 집중 보도했다.

태국과 인도에서 모인 70명의 순례단은 3월 1일 나가르주나 사가르의 부다바남 공원에 도착해 성대한 회향식을 봉행했다. 지난 2월 2일 카르나타카주 칼라부르기의 싯다르타 붓다 비하라 사원에서 시작된 도보 순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남인도의 광활한 주(州)를 넘나드는 423km의 여정으로 이어졌다.

순례단은 태국의 승가 프로젝트 책임자인 프라 송샤 코비도 스님이 이끌고 인도의 가간 말릭 재단 가간 말릭 회장이 조직했다. 이번 순례는 주최 측이 중인도의 마하라슈트라와 북인도의 우타르프라데시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하는 도보순례로 남인도에서 처음으로 진행됐다.

주최 측은 인도 각지에서 도보순례를 이어 가는 것에 대해 “지리적, 정신적으로 인도의 여러 지역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시 연결하고자 하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순례에는 60명의 태국 비구스님들과 10명의 인도 재가신자들이 함께했다.

주최 측은 “이번 도보순례는 평생을 걸어 다니며 설법한 부처님의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순례단의 하루 일정에 대해 “순례단은 하루 평균 6시간씩 걸었으며, 비구계에서 규정한 생필품 등 약 8kg의 개인 소지품을 직접 짊어졌다. 오후 불식을 준수해 참가자들은 하루에 한 끼의 공양만을 했다”고 전했다.

순례단은 경로 중 다양한 종교 공동체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주최 측은 “모스크, 힌두사원, 기독교 기관뿐 아니라 시크교도들이 순례단을 환영하며 음식과 휴식, 격려를 아낌없이 제공했다. 이러한 모습은 현대사회 속 종교 간의 화합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회향지인 붓다바남 공원의 마하스투파 불탑에 도착한 순례단은 현지 특별 담당관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현지 주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순례단은 태국에서부터 순례 기간 동안 함께한 불상을 대탑에 봉안했고, 현지 불교도들은 순례단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의식을 봉행했다.

순례단은 회향식에서 “순례는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포교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례단을 조직한 가간 말릭 회장은 “해외 많은 불교도들이 인도를 선망하지만 정작 인도 내에서는 불교의 영향력이 여전히 미미하다”며 “순례를 통해 불교 발상지인 인도에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인식을 되살아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문화사업단, 사찰음식 소임자 교육 진행

3월부터 권역별 2박 3일도
사찰 당 3인 이내 신청 가능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이 사찰음식 소임자들의 전문성과 조리 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한 교육을 진행한다.

전국 사찰의 사찰음식 소임자와 템플스테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사찰음식 소임의 이해 등 이론 교육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사찰음식 시연 및 실습이 병행된다.

특히 올해 교육은 전년도와 달리 일부 권역에 2박 3일 집중과정을 새롭게 편성해, 이론과 실습을 보다 심화된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은 2월 26일부터 선착순 모집하며, 사찰 당 최대 3인 이내로 접수 가능하고 반드시 소속 사찰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희망자는 조계종과 사찰음식 홈페이지(www.koreatemplefood.com)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은 후 작성해 이메일(wonseok@templestay.com)로 제출하면 된다.

신중일 기자

석림동문회, 졸업생 환송·신입생 환영회

2월 27일 조계사 관음전서
회장직 담화 스님이 이행



동국대 석림동문회(회장 돈관 스님)는 2월 27일 서울 종로 조계사 관음전에서 ‘2026년 동국대 석림회 졸업생 환송회·신입생 환영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자리는 올해 봄 학기에 졸업해 일선 현장에서 수행과 포교를 이어 가는 59기 졸업생 4명 스님(서울캠 3명, WISE캠 1명)을 축하하고 63기 신입생 15명(서울캠 9명, WISE캠 6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국대 석림동문회장 돈관 스님(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은 이날 실질적인 동문회장 역할을 동문회 상임부회장인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에게 이양할 의사를 밝혔다. 담화 스님의 공식적인 취임은 절차를 거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돈관 스님은 “학교법인 이사장을 맡다 보니 동문회를 돌볼 시간이 잘 나지 않는다.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활동력 있는 담화 스님이 동문회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화 스님은 “어른 스님들의 생각을 받들어 실질적으로 이사장 스님을 대신해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석림동문회는 2026년 석림회 소임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새로운 출발선상에 선 59기 졸업생들에게 별도의 장학금을 전했다. 또한 1학년 신입생 전체에게 인사를 받기도 했다. 신중일 기자